

발행일 2020. 7. 14.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박재욱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계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유병선**

1. 공공외교의 의의와 유형

- 공공외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 외교활동이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winning the hearts and minds)'임
 - 개인, 사회,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상호관계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 신뢰 구축을 위한 외교활동에 해당함
- 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의 복합적 의미인 세방화(glocalization)가 진행되어 인터넷, SNS 등 연성권력(soft power)을 활용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개방적 외교가 확산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여론 환경에서 공공외교는 목표와 대상을 선정하는데 국내외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사라져 가고 있음
- 공공외교는 사용하는 소프트 파워의 종류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며, 어떤 소프트 파워를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아이디어 및 가공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

[표1] 소프트 파워 종류에 따른 공공외교 유형

공공외교 유형	사용하는 소프트 파워
문화외교	·문화자산 가공
지식외교	·지식자산 가공(교과서·책 발간)
정책외교	·현 정책 가공(예: 통일외교)
미디어외교	·미디어 매체(예: CNN, BBC, NHK, KBS)
기업외교	·다국적기업의 현지 진출을 통한 외교
스포츠관광외교	·스포츠·관광 자산 가공

- 특히 미디어는 공공외교의 다양한 기재 중 상대국 또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한국의 미디어외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해외문화홍보원, 외교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서울외신기자클럽, 한국신문방송편집위원회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비대면, 비접촉, 무인화, 온라인화로 상징되는 언택트(Un+contact) 시대의 도래를 예측하게 함.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은 보다 확대될 것이 예상됨
 - 대한민국 외교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한 '케이(K)-방역 웹세미나'를 개최해 세계 각국과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함
 - 아울러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트러스트(TRUST)' 캠페인을 전개하여 편견에 맞서 모두가 함께 바이러스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음

2. 코로나19와 공공외교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뢰 및 지구공동체적 사고에 기반한 국제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
 - 중국은 공공외교란 이름으로 전략적 이익국에게 의료물품 지원 활동을 전개함. 그러나 의료물품의 불량,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코로나19 대응,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반발을 샀음
 -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보건학상 비상식적 행보, 주지사와의 갈등, 마스크 쟁탈전을 부채질하는 미디어 보도, 외국 주재 백신 개발 제약회사의 본국 이전을 통한 백신 독점 의혹 등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국제공조에 실패함
 - 미·중 패권 경쟁 가속화와 '비민주주의적 민족주의 질서'의 등장이 예견되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내 공공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외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혁신적 포용국가'가 비전에 걸맞게 내국인에 대한 지역 봉쇄나 국경봉쇄를 하지 않았고, 내외국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검사 및 치료를 함

이 글은 2018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임

- 보건복지부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강제 출국 걱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오니 증상 있는 경우 보건소에 문의 바람, 주변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함
-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UN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보내 한국인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건 도움에 보답함
- 외교부장은 BBC 인터뷰(3월 5일)에서 인종차별 금지 호소, 국제공조를 의료 지원·원조가 아닌 협력과 파트너의 자세로 접근, 백신 개발을 인류가 공유하는 재산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을 밝힘

3.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 공공외교의 과제

- 1) 지역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배려
 -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는 지방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배려 정책에서 출발해야 함.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지역 내 외국인(학생, 노동자)에 대한 혐오감 확산의 가능성을 높이게 함
 - 역사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시기에는 소수자 혐오와 감염병 환자에 대한 낙인, 심지어 외국인에게 책임을 물으며 생명을 빼앗는 행태가 나타나기도 함
 -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인종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음. 한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할 당시 한국인에게 “저기 코로나가 온다”라는 비하 발언을 하거나, 비행기 화장실에 한글로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사례가 발생함. 만약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면, 국제사회의 혐오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음
 - 대전광역시 지역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며 역할 수행에 노력하고 있음
 - 대전은 2020년 5월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에 광역 지방정부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됨. 민선7기 공약사업인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센터 내 의료 공간을 마련하고, 관내 의사회 소속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상 진료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전개할 계획임
 - 대전광역시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에는 영어로 대전확진자 이동경로(Route of Daejeon COVID-19) Confirmed Cases)를 알리고 있음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검진 유도 및 자진 출국 신고를 독려하는 계도 활동을 외국인의 고용이나 방문 가능성이 높은 대전 지역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함

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안부 묻기와 지원

[표2] 대전 자매도시 코로나19 현황(2020. 7. 1. 현재)

자매도시	국가	확진 / 사망
몽고메리 카운티 시애틀	미국	2,726,736(+42,470) / 130,102(+1,245)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647,849 / 9,320
과달라하라	멕시코	220,657 / 27,121
더반	남아공	151,209(+6,945) / 2,657(+128)
캘거리	캐나다	104,204(+286) / 8,591(+25)
난징 선양	중국	85,232(3) / 4,648
웁살라	스웨덴	68,451(+784) / 5,333(+23)
삿포로 오다	일본	19,481(+138) / 987(+2)
브리스번	호주	7,836 / 104
부다페스트	헝가리	4,155 / 585
빈증성	베트남	355 / 0

출처: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각 자매도시 홈페이지

- 대전광역시는 2020년 7월 현재 11개국 14개 도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맺고 있음. 자매도시 국가 11개국 중 호주, 헝가리, 베트남 등 3개국을 제외한 8개국이 대한민국(12,800/282)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임
-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최근 남아공의 확진(사망)자 증가 추세가 매우 염려되는 상황임
- 지역사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효과를 공유하는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협력의 범위를 경제 회복, 공동 연구 개발, 인재 양성 등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포용적 국제협력 모색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우리와 다른 방역 방식을 채택한 스웨덴 사례의 이해를 위해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는 아직 최선의 방역 사례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확연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임
- 2022년 10월, 대전에서 5일간 개최 예정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총회 140여 참가 예정국 참가 도시에 대해 안부와 격려를 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까지 고려하여 ‘마음을 얻는’ 노력을 해야 함
- 참고로, 서울특별시 2020년 2월 초 한국의 메르스 위기(2015년) 당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협력도시인 베이징에 방역물품을 보냄
- 결론적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자매·우호도시를 챙기는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 필요함

6월 대전 경제동향



종합평가

대전지역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9년 4/4 분기 이후 2020년 1월까지 상승하다 2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2020년 1월과 2월을 정점으로 3월과 4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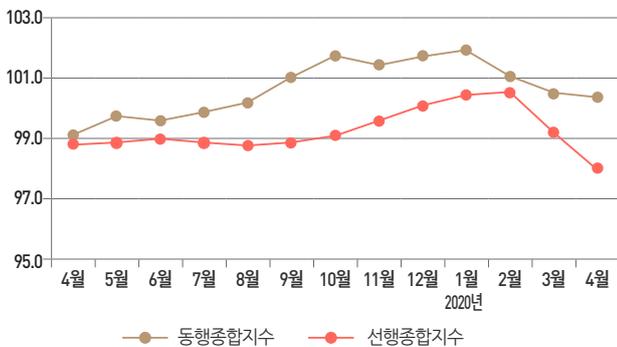
개별지표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전월대비 모두 부진한 모습임. 전년동월대비,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인 반면,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불안하고, 수출이 감소함. 전월대비로는 소비는 다소 개선된 모습인 반면, 생산과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수출도 감소하는 모습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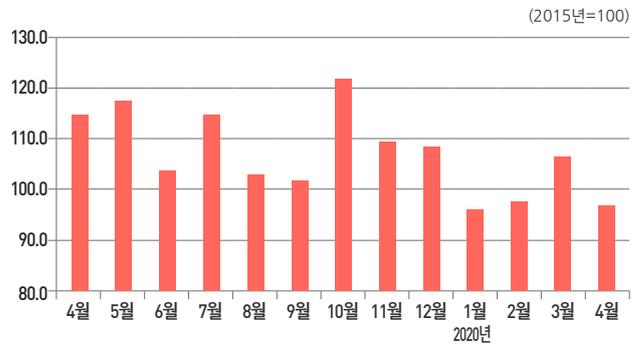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금융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신중국 불안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됨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현재 생산, 소비, 고용 등의 개별지표들이 감소하는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 등 실물경제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함

01 경기지수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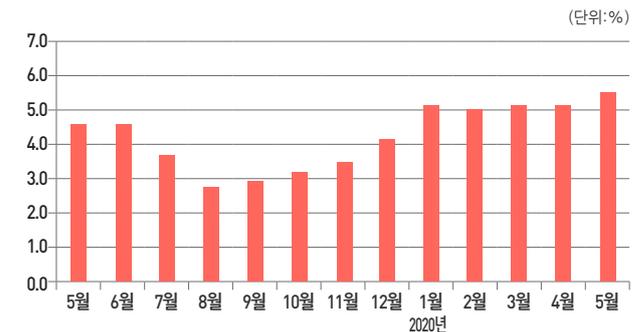
02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03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04 고용 실업률



6월 세종 경제동향



종합평가

2020년 5월 세종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88.6으로 전월대비 대 폭 증가함. 소상공인의 경기에 대한 전망지수는 95.7로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산측면에서는 세종시 5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 전월 대비 6.6% 감소함.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 하였으며, 전월 대비 4.7% 감소함

5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620건으로 전년 대비 121.4%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 19.9% 증가함. 전월세 거래량은 1,207건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 전월 대비 7.7% 감소함

5월 경제활동 인구는 18만 5천명으로 전년 동월(17만 천명) 대비 8.2% 증가, 전월(18만 3천명) 대비 1.1% 증가함. 취업자는 17만 8천명으로 전년 동월(16만 7천명) 대비 6.6%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0.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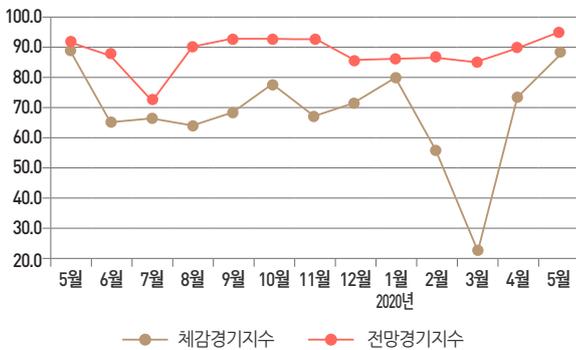
5월 전국의 실업률은 4.5%이며, 세종시 실업률은 3.6%로 전라남도(2.9%), 제주도(3.1%), 충청북도(3.2%), 전라북도(3.3%)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세종시 5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0%p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0.5%p 증가함

01

경기지수 소상공인 경기지수



(100=전월 대비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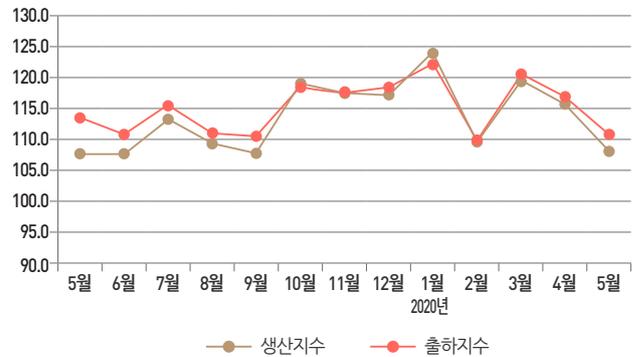


02

생산 광공업 생산지수 추이



(2015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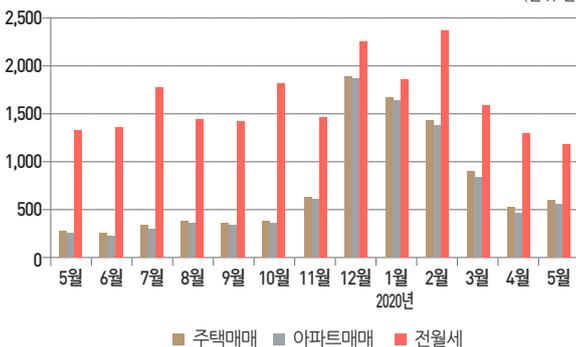


03

부동산 부동산 가격지수



(단위:건)



04

고용 실업률



(단위:%)

